



[시장동향] 美, 분유 대란에 우유 섭취 권장 연령 낮춰

- 소아과학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일반 우유 섭취 권장



미국 전역에 분유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소아과학회가 우유 섭취 권장 연령을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분유 부족 사태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수 분유를 섭취하는 영유아를 제외한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분유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우유를 섭취시킬 것을 권장했다.

학회측은 분유를 희석시켜 먹이거나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유를 섭취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며, 우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 하루 24온스(약 680ml)로 섭취량을 제한해야하고 첫 돌 무렵 영아들의 경우 유아용 조제 분유를 일반 분유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들이 생후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우유를 섭취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유 섭취시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추가 공급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국(FDA)은 분유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수입분유 규제를 완화하고 리콜 사태를 일으킨 애보트의 분유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wsaz.com / wwmt.com, 5월 17일 >

[업계동향] 알라푸드,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 사업 철수

- 현지 기업에 버터 및 치즈 브랜드 매각으로 완전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 최대 유가공조합인 알라푸드가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당 조합은 러시아에서의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지난 18일 러시아 현지 기업에 버터 및 치즈 브랜드를 매각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러시아는 알라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금수 조치 시행 이전까지 연간 65~8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며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택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금전적·물적 지원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just-food.com, 5월 18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